

News

금융위 “내년초 ‘금산분리’ 구체안 마련”

문화일보

금융위원회, 금산분리와 업무위탁 관련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2023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상정 예정... 금융사 진출 비금융 업무 범위도 다양한 방안 열어놓고 검토
김주현 위원장, 빅블러 현상 가속화 속 금융과 비금융 융합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금산분리 개선 필요 강조... 온라인 대환대출 시스템도 구축 예정

카뱅 ‘금융아이디’ 선점...플랫폼 ‘정조준’

헤럴드경제

카카오뱅크, 지난달 '카뱅 디지털 금융아이디'와 '카뱅 금융아이디' 등 두 종류의 상표권 출원 공고... 추후 카뱅 금융아이디를 통해 다양한 금융활동과 서비스 연결 취지 설명
카뱅의 플랫폼 기능 강화 목적... 내년 상반기까지 자산관리 기능 대폭 확대, 펀드 매매 서비스 출시 예정... 연내 마이데이터 분허가 획득 프로세스 진행해 내년 개시 예정

금융당국, 은행권에 “과도한 자금조달 경쟁 자제” 당부

이데일리

금융당국, 은행권에 자금조달 경쟁 자제 당부...은행채를 통한 자금 조달도 시기와 규모에 있어 채권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당부
은행권으로 시중자금 쏠림현상 지속될 경우 제2금융권이 유동성 부족 사태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 다만 CP, ABCP, RP 매수에 나서고 MMF 운영 규모 유지 요구

'발행·차환 모두 스톱'...회사채, 6년만에 순상환 전환

연합뉴스

올해 회사채 시장 14일 기준 8조 9,400억원 순상환 상태... 연간 발행액보다 상환액이 많은 경우는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통상 기업들의 재무사정과 역의 상관관계이나, 올해는 재무 사정 악화에도 순발행 규모가 마이너스로 떨어져 순상환 기록... 은행 대출이나 CP 발행으로 이동한 것이 큰 이유

금융당국, 보험사 1사 1라이선스 유연화 추진...“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주현 금융위원장, 보험사에 대한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 마련... 작년 소액단기보험업에 이어 전문분야 특화 자회사 설립 가능
기존에는 복수의 보험업 겸업 위해 자회사 설립 등 새로운 라이선스 필요해와... 대표 예시로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과 캐롯손해보험

의료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심평원 배제하면 찬성”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 도입 관련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 선회... 실손청구 간소화 도입하되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
이미 핀테크 업체를 통한 청구 간소화 라인 구축되어 있음을 강조... 다만 보험업계는 심평원을 활용해야 제도가 빨리 도입되고 비용도 가장 적게 든다는 입장

유동성 확보 사활 건 대형증권사, 발행어음 규모 '급증'

미디어펜

초대형 투자은행들의 발행어음 규모 급증...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미래에셋증권... 작년말대비 9월말기준 4조 4,232억원으로 10배 이상 폭증한 모습
NH투자증권 5조 4,000억원, KB증권 6조 7,840억원으로 각각 60%, 52% 증가... 세전 기준 대부분 5%대 이자율을 기록하기 때문에 자금 물려...

제2채안펀드, 브릿지론 매입도 검토...시장선 “사실상 담보 없어 위험”

이투데이

대형 증권사 공동 펀드, 브릿지론 매입 검토 중... 브릿지론 위험을 유형화해 저위험의 물건만 매입하겠다는 입장... 매입 시 중소형 증권사의 브릿지론이 상당수 포함 예상
한편 투자협의회는 PF-ABCP 매입 기준 만드는 중... A2급 우선대상으로 하고 상황보며 A1급으로 확대... 오는 21일부터 ABCP 매입 SPC 매입 시작 계획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